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on Self-Competence of Juvenile Inmate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Si-Yeon Lee
Seoul Jang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Ⅱ의 횡단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년원보호소년 총 908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는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 및 사회적유대와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소년원보호소년, 사회적 유대, 자기유능감,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on self-competence in the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data of 908 juvenile inmates in a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to Encourage Start-up for Youth(2015)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1) social bonding was found a key factor affecting the self-competence, (2) their social bonding affects self-esteem, (3) self-esteem affects self-competence, (4) self-esteem was prov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and self-compete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reviewed, as are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inmates, Social bonding, Self-competence, Self-esteem

Received 25 September 2017, Revised 27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i-Yeon Lee(Seoul Jangsin University)
Email: syl@sj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청소년비행은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률 등의 특성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범죄자는 10년 전보다 54.3%나 늘어났고[1], 재범률은 2014년 38.3%로 나타나[2], 소년원이나 민간시설에서 교정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청소년비행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4]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이슈이다. 특히 높은 재범률은 청소년비행의 예방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은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교정 및 사회복귀와 지원방안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촉발요인과 같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5].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비행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호요인은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조절하고 개선하는 요인으로[6], 이러한 완충적인 작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7]. 따라서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 방안을 찾고, 나아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8]. 먼저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은 자기유능감[9]과 자아존중감[10,11]이다.

자기유능감(self-competence)은 자신의 능력과 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믿음으로[12], 유능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상을 의미하고,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13]. 자기유능감은 개인이 추구하려고 선택한 행동의 과정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적절하게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자기유능감은 발달학적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하며 인간이 성숙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등 중요한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15].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아에 대한 감정적 평가인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달리, 자기유능감은 과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16,17].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뜻하지만 자기유능감은 행동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념화한다[18]. 이에 본 연구에서 자기유능감은 특정 과제수행 및 다양하고 새로운 성취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19]. 자기유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고자 꾸준히 시도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적화할 도전들을 찾게 된다. 자기유능감은 학업성취를 비롯한 다양한 성취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20]. 따라서 자기유능감은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유능감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21]. 또한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을 고려할 때 개인 역량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2].

한편, 자아존중감은 태도와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23],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의 원인으로 밝혀져 왔다[24,25]. 10-16세의 비행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개인 내적 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다[26].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게임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28],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여 건강한 발달과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2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30].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 수준이 낮아지고[31],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 학교적응, 학업성취, 진로의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재비행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32]. 또한 의료소년원에 입소한 비행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33], 자아존중감은 비행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유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보호요인과 더불어 비행청소년의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요인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이다. 사회적 유대는 Kohut[34]의 자기심리학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애 초기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유대의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Barber와 Schluterman[35]은 사회적 유대를 4개의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관계체계의 한 속성으로 관계에서 상호호혜적이고 역동적인 속성을 가진다. 둘째,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나 속해 있는 환경을 개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의 정도 또는 관계 안에서의 수행정도를 본다. 셋째, 사회적 유대는 정서적 또는 인지적 상태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상태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행동의 요소가 같이 혼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차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는 특정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긍정적 정서, 상호지로서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유대형성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6]. 이러한 개념에는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37], 사회적 지지[38]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어 왔다[39].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도덕적인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와의 유대정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40]. 즉, 청소년이 사회에 대한 애착, 관여 및 참여도와 사회적 유대가 높고 사회의 도덕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41].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대는 폭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42].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관계하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가 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고 특히,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40,43]. 부모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비행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44], 부모와의 애착요인이 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20].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인은 또래집단의 영향력이다[5]. 또래집단은 준거집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서적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45].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능력이 없으면 비행이나 음주 문제에서부터 우울증까지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46]. 또한 청소년 초기에 또래의 지지가 거부된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이후의 행동문제가 예측되었다[47].

이러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는 청소년의 자기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기유능감은 사회 환경과 지속적으로 효과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된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중단연구 결과[5], 유능감의 변화는 부모와의 관계성 및 친구와의 관계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유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부모애착 및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49]. 부모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지각된 자기유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형성하게 한다[50]. 아울러 또래애착 및 친구지지[51,52]와 친구관계[53]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연구 결과[54]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구 애착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55,5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자기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또한 청소년

리더십기술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자기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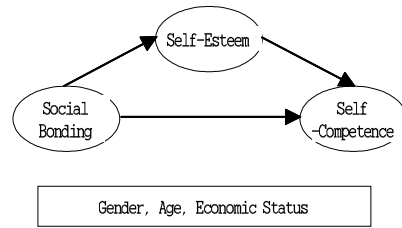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고[20], 사회적 유대와 자아존중감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49,51,52,53,54].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29,55,57]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자기유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대 요인과 복합해서 작용하는 경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년원보호소년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의 탐색과 소년원보호소년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횡단조사이다. 이 자료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22]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국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을 전수조사 하였고, 총 사례 수는 1,046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조사의 최종분석에 반영된 사례 수인 90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자기유능감

자기유능감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22]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누구보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편이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0으로 나타났다.

2.3.2 사회적유대

사회적 유대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22]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유대는 부모유대와 친구유대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점수 범

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5이고, 부모유대는 .941, 친구유대는 .883으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22]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 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 중 부정형으로 구성된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0으로 나타났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59]. 성별은 여성이 '0', 남성은 '1'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14~16세는 '1', 17~19세는 '2', 20세 이상은 '3'으로 처리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못 산다(1점)~매우 잘 산다(7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4.0 window를 활용하였다. 기초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적용하였고[60],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38명(81.3%), 여성이 170명(18.7%)이고, 14-16세는 195명(21.5%), 17-19세는 649명(71.5%), 20세 이상이 64명(7.0%)이었다. 보호처분의 유형¹⁾은 7호 21명(2.3%), 8호 42명(4.6%), 9호 225명(24.8%), 10호 620명(68.3%)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초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정규 가정을 충족하였다.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부모유대 3.41(SD=.93), 친구유대 3.93(SD=.83), 자아존중감 3.30(SD=.59), 자기유능감 3.67(SD=.76), 주관적 경제수준 3.84(SD=1.23)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908)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Social Bonding	Parent	3.41(.93)	-.305	-.072
	Peer	3.93(.83)	-.455	-.117
Self-Esteem		3.30(.59)	.366	.421
Self-Competence		3.67(.76)	-.255	.087
Economic Status		3.84(1.23)	-.269	.271

1) 우리나라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 처분까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 시설에 감호위탁 되고, 8~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

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6$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유대는 자기유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243, p<.01$),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39, p<.01$). 또한 친구유대도 자기유능감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356, p<.01$),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269, p<.01$)을 보였다.

성별은 부모유대($r=.091, p<.01$)와 자기유능감($r=.073, p<.05$)에서만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령은 부모유대($r=-.073, p<.05$)와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r=.098, p<.01$)과 자기유능감($r=.068, p<.05$)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부모유대($r=.143, p<.01$)와 자아존중감($r=.173, p<.01$)에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N=908)

	1	2	3	4	5	6	7
1	1						
2	.368**	1					
3	.239**	.269**	1				
4	.243**	.356**	.479**	1			
5	.091**	-.018	.066	.073*	1		
6	-.073*	-.008	.098**	.068*	.041	1	
7	.143**	.028	.173**	.045	.019	-.043	1

1=Social Bonding(Parent), 2=Social Bonding(Peer), 3=Self-Esteem, 4=Self-Competence, 5=Gender, 6=Age, 7=Economic Status.

* $p<.05$, ** $p<.01$

3.4 매개효과 검증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모델에 근거하여 3단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60].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Durbin-Watson의 d 통계치(1.913~2.030)와 VIF 값(1에 근접)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59]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소년원보호소년의 부모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3>. 1단계 모델의 설명력

(R^2 값)은 .097, F 값은 19.37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부모유대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220, p<.001$). 2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074, F 값은 14.50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모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239,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254, F 값은 51.134($p<.001$)로 나타났고, 부모유대($\beta=.141, p<.001$)와 자아존중감($\beta=.446, p<.001$)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3단계에서 부모유대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부모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Z=6.285, p<.001$). 따라서 소년원보호소년의 부모유대는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bonding (parent) and self-competence

(N=908)

Steps	Direction	B	β	t	R^2	F
1	G	.043	.028	.889	.097	19.378***
	A → SE	.134	.116	3.653***		
	ES	.060	.125	3.751***		
	Pa	.139	.220	6.831***		
2	G	.093	.048	1.482	.074	14.501***
	A → SC	.120	.081	2.516*		
	ES	-.006	-.009	-.270		
	Pa	.194	.239	7.315***		
3	G	.068	.035	1.213	.254	51.134***
	A	.043	.029	1.002		
	ES → SC	-.040	-.065	-.124*		
	Pa	.114	.141	4.674***		
	SE	.574	.446	14.729***		

G=Gender, A=Age, ES=Economic Status, Pa=Social Bonding(Parent), SE=Self-Esteem, SC=Self-Competence.

* $p<.05$, *** $p<.001$

다음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친구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4>, 1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122, F 값은

25.00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수인 친구유대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267, p<.001$). 2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148, F 값은 31.28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구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358,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293, F 값은 62.362($p<.001$)로 나타났고, 친구유대($\beta=.250, p<.001$)와 자아존중감($\beta=.407, p<.001$)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의 친구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친구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Z=7.319, p<.001$). 즉, 소년원보호소년의 친구유대는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bonding (peer) and self-competence (N=908)

Steps	Direction	B	β	t	R^2	F
1	G	.080	.053	1.697	.122	25.004***
	A → SE	.117	.102	3.246**		
	ES	.069	.143	4.381***		
	Pe	.190	.267	8.566***		
2	G	.148	.076	2.462*	.148	31.287***
	A → SC	.097	.066	2.127*		
	ES	.005	.008	.254		
	Pe	.328	.358	11.653***		
3	G	.106	.054	1.929	.293	62.362***
	A	.036	.024	.857		
	ES → SC	-.031	-.050	-1.691		
	Pe	.229	.250	8.563***		
	SE	.524	.407	13.627***		

G=Gender, A=Age, ES=Economic Status, Pe=Social Bonding(Peer), SE=Self-Esteem, SC=Self-Competence.
* $p<.05$, ** $p<.01$, *** $p<.001$

4. 결론

4.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대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는 모두 자기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유능감의 변화가 부모와의 관계성 및 친구와의 관계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0]와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41]와 마찬가지로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 모두 자아존중감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0,54]와 일치하고, 또래집단의 무시와 거부경험이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연구[4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 결과[54]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가 자기유능감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는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자기유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구조보다는 부모나 가족과의 유대와 같은 가족 기능이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61]. 따라서 소년원보호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게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재 소년원 안에도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이 있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참여는 어렵다[43]. 또한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대다수가 취약한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아서 가족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22]. 따라서 원가정의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지원방안은 보호소년

의 특성과 가정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소년원교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년원내에서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43].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자기유능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 [29]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소년원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연구 결과[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복귀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보호소년의 소년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62]. 비행청소년이 소년보호 시설에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향후 이들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3]는 점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은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개인내적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유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의 자기유능감[64]이나 자아존중감[65]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공격성이나 분노와 같은 개인내적 요인[66,67]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고위험군 비행청소년 중심의 소년보호시설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인 보호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와 같은 환경적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소년원보호소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에 있어서도 기존 선행연구 결과로 확

인된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소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방법은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횡단조사를 사용한 이차 자료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소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에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보호요인 및 환경적 보호요인 등 다양한 보호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 및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J. Song, S. Y. Kim, J. H.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focus on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Korean Journal of Correction Welfare*, Vol. 40, pp.49-74, 2016.
- [2] Institute of Justice, "White paper in crime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2015.
- [3] Y. S. An, H. J. Kim, "The measur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halfway hous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offenders' second convic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US halfway housing program case",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Vol. 9, No. 3, pp.165-217, 2015.
- [4] H. M. Jin, S. W. Bae,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4, No. 2, pp.193-221, 2012.
- [5] E. M. Kim,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isk assessment tool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y recidivism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2, pp.119-128, 2014.
- [6]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316-331, 1987.

- [7] N. Garnezy,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McGraw-Hill, 1983.
- [8] Y. J. Choi, S. Y. Lee, "Internalization problem, delinquency and protective factor in poor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1, pp.89-113, 2006.
- [9] S. K. Yoo,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between male and female delinquent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2, pp.201-217, 2002.
- [10] H. S. Park, S. G. Lee, "Moder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the relation between deviant peer's influences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37, pp.399-427, 2008.
- [11] H. J. Kim, M. S. Yang,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23-34, 2017.
- [12] R. W. Tafarodi, W. B. Swann,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65, pp.322-342, 1995.
- [13] J. E. Ormrod, "Educational psychology: developing learners(4th ed.)", NJ: Merrill Prentice Hall, 2003.
- [14]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1997.
- [15] S. Harter,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3, pp.87-97, 1982.
- [16] J. Brockner, "Self-esteem at work",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8.
- [17] M. E. Gist, T. R. Mitchell,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7, pp.183-211, 1992.
- [18] A. Bandur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Vol. 37, No. 2, pp.122-147, 1982.
- [19] D. G. Gardner, J. L. Pierc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Group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Vol. 23, pp.48-70, 1998.
- [20] A. Y. Kim, M. H. Lee, H. W. Jun, D. S. Lee, I. H. Lim,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erceived competence, relatedness, and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 4, pp.945-967, 2007.
- [21] J. D. Yang, Y. K. Park, "Impact of family and peer support on self-efficacy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4, No. 4, pp.211-235, 2009.
- [22] Y. J. Lee, S. Y. Park,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to encourage start-up for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5.
- [23] J. Y. Lee, S. K. Nam, M. K. Lee, J. H. Lee, S. M. Le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 pp.173-189, 2009.
- [24] W. S. Kim, S. J. Kim, 2010. "Determinants of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 on their delinquency in juvenile protection proces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2, No. 2, pp.1-22, 2010.
- [25] T. J. Owens,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pp.391-407, 1994.
- [26] E. Coler, C. I. Kumchy, "The CIP battery: identification of depression in a juvenile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7, No. 4, pp.880-884, 1981.
- [27] S. I. Yun, H. S. An, S. W. Oh, "The influence of the attachment of parents and the stress of school life middle-school students to the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7, pp.221-227, 2012.
- [28] S. Harter,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esteem",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New York: John Wiley, 1983.

- [29] S. H.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 5, No. 1, pp.17-34, 2014.
- [30] J. H. An, Y. D. Yun, H. S. Lim,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197-208, 2016.
- [31] H. S. Park,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nfluential factor", *Korean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 Vol. 1, pp.165-187, 2011.
- [32] S. H. Hong, H. S. Kim, "The study on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3, pp.193-216, 2007.
- [33] Y. S. Cho, M. H. Gang, K. O. Oh, "ADHD symptom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657-663, 2013.
- [34] H.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4.
- [35] B. K. Barber, J. M. Schluterman, "Connectedness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call for greater conceptual clar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43, pp.209-216, 2008.
- [36] M. J. Karcher, "The Hemingway: measure of adolescent connectedness: validation studies: teacher disconnection as a consequence of violence", *Journal of School of Violence*, Vol. 1, pp.35-51, 2003.
- [37] G. C. Armsden,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5, No. 5, pp.427-453, 1987.
- [38] K. M. Huh, "Juvenile delinquency control model from social bond theory's perspectiv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Vol. 25, pp.141-173, 2006.
- [39] R. L. Akers,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Los Angeles: Roxbury Pub., 1997.
- [40] T.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rkely: California Univ. Press, 1969.
- [41] C. H. Lee, K. S. Lee, "The influence of social solidarity on cyber bullied experience of young people through smartphone",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Vol. 19, No. 2, pp.33-59, 2015.
- [42] J. W. Kaminski, R. W. Puddy, D. M. Hall, S. Y. Cashman, A. E. Crosby, L. A. Ortega, "The relative influence of different domains of social connectedness on self-directed viol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9, No. 5, pp.460-473, 2010.
- [43] J. Y. Kim, J. T. Hwang, Y. O. Jo, "A study on factors of change in juvenile inmates' behavior at juvenile correctional center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6.
- [44] S. W. Kim, B.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es of child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in the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Vol. 14, No. 3, pp.327-353, 2010.
- [45] Y. M. Lee, "A study of family strength and peer conformity among adolescents and mobile phone addiction",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46] H. Hops, B. Davis, A. Alper, N. Logoria, "Adolescent peer relation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1997.
- [47] S. R. Asher, K. A. Dodge,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 4, pp.444-449, 1986.
- [48] R. M. Lee, S. B. Robbins,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2, No. 2, pp.232-241, 1995.
- [49] I. O. Park, J. W. Le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self-esteem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 juvenile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2, No. 1, pp.21-33, 2011.
- [50] G. B. Peterson, A. Milton, “Effects of altering outcome expectancies on pigeons’ delayed conditional discrimination performance”, Learning and Motivation, Vol. 11, No. 3, pp.267-288, 1980.
- [51] K. S. Kim, B. E. Seo, “The influence of a competitive environment on self-esteem, peer relations, school dissatisfaction, and delinquency: cross-group analysis of 2006 and 2009”,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3, No. 2, pp.55-80, 2013.
- [52] K. S. Moon, K. H. Im, “Extinction, formation, and duration of suicidal impul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tates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 3, pp.665-683, 2007.
- [53] E. K. Seo, “Life experience and happiness of Korean adolescents”, Proceeding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pp.17-28, 2007.
- [54] K. H. Lee, M. H. Yoon, “The effect of parent fact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mature career choice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1, pp.175-199, 2011.
- [55] W. S. Se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maturity, SES, self-esteem, self-efficacy of the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8, No. 4, pp.149-171, 2015.
- [56] Y. M. Choo, “The effects of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 on adolescents self-esteem, self-efficacy,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4.
- [57] S. S. Lee, “The effects of middles school students’ self-regulation on their social competence: with moderating effects analysis according to degre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4, pp.247-267, 2014.
- [58] C. S. Lee,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 [59] D. S. Ra, “The influence of parental violence on the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oderate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4, pp.55-77, 2016.
- [60]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ety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2, 1996.
- [61] M. B. Maskin, E. Brookins, “The effects of parental composition on recidivism rates in delinquent girl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0, No. 3, pp.341-342, 1974.
- [62] S. M. Im,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life adjustment in students of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4.
- [63] Y. S. An, J. H. Cheon,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youth recovery center for repeated crime prevention”,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17, No. 4, pp.165-190, 2016.
- [64] I. S. Kim, “The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juvenile probation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5, pp.479-490, 2014.
- [65] M. E. Le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juvenile delinquents of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3, pp.437-452, 2016.
- [66] J. H. Moon, S. M. Hong,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and aggression of a probation office juvenile”, Th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5, No. 2, pp.73-88, 2015.
- [67] I. S. Park, S. W. Hong, “The effects of a paper folding program on the anger management, aggression and self-esteem among delinquent adolescents on probation: based on delinquent juveniles held at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11, No. 1, pp.59-77, 2014.

이 시 연(Lee, Si Yeon)



- 1994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6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syl@sjs.ac.kr